

## 10월의 사양관리

- 축산기술연구소 -

## 일반 사양관리

**이** 달에는 밤낮의 일교차가 크겠고, 대륙성 고기압의 영양으로 일부 내륙 및 산간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으니 일교차가 커지지 않도록 밤에는 보온관리에 신경 쓰고 야간의 갑작스런 기온저하에 대비하여 윈치커튼 등을 설치하여 방풍에 주의한다.

낮에는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조치하되, 항상 축사 내 통풍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월동용 조사료를 확보하는 시기로 매미 태풍과 잦은 홍수로 인해 옥수수 사일리지 및 이모작 사료작물 수확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조사료 부족현상이 예상되므로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벼짚의 영양적 사료가치는 적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조사료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확보하되, 비를 맞으면 기호성과 영양분이 크게 떨어지므로 벼 수확 직후 최대한 비를 맞히지 말고 잘 말려 신속히 수거하고 반드시 비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는 창고 등에 보관한다. 또한 암모니아 처리 및 곤포 사일리지를 만들어 벼짚의 보관성 및 사료가치를 높여 벼짚의 부패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소의 생산성을 높인다.

국내 TMR 원료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가부산물 및 식품가공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젓소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한다. 자가배합사료를 제조·급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정투자액, 노동력 및 경제성을 고려하되, 원료는 품질이 일정하고 가격이 저렴하여야 하며 가축에게 기호성이 좋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후 자가배합사료를 제조하여야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농가에서 모든 원료를 다 구입하여 배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일정한 단미사료 부분은 다른 TMR 공장에 OEM 방식으로 주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다시 조사료와 부산물을 넣고 자가 배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사양관리

**원** 절기가 되면서 조사료 종류와 농후사료 부분이 변경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경하여 사료변경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고, 특히 분만 전후 사양관리에 유의한다.

육성우의 단계별 사양관리에는 건초의 질과 농후사료급여량을 조절하여야하며 정확한 육성우 BCS 측정의 안목을 높여 건강하고 용적이 큰 반추위를 가진 후보축을 육성한다. 보통 13개월 이상되면 체중이 350kg, 최고 127cm 이상이 되면 초임

이 될 수 있다.

TMR 급여의 배합비는 중요하다. 먼저 TMR은 조사료의 양을 얼마로 가져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선 결정한다. 보통 조사료의 질에 따라 30-35%를 정하고, 그 다음 수분함량 40-45%, 에너지, 단백질 순으로 맞추면 누구나 고능력우와 번식관리에 문제가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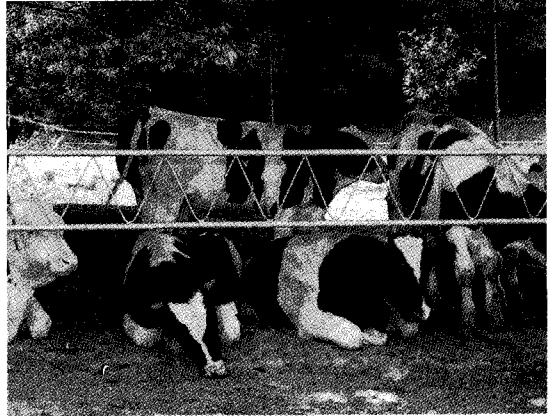
#### ◆ 체세포 관리를 위한 사양관리

겨울에는 문제없이 지내는데 여름과 환절기에는 약한 것이 잦소다. 이리다 보니 잦소는 여름부터 유방염에 시달리고 번식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낙농을 하는 분들은 한결같은 소원이 유방염이 없으면 하는 것이고, 우유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은 공통된 것일 것이다. 유질 개선을 위하여 유방염 근절 세 가지는 축사환경, 장비, 작업자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있다.

① 바로 날씨가. 왜 날씨가 민감하게 연결이 될까? 가장 큰 것은 날씨에 의한 스트레스와 밀접하다. 기온차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정한 온도보다는 월등히 스트레스를 높인다. 그 작용으로 우유에 문제가 발생한다. 낮 동안은 그늘막과 환풍기를 가동하여 건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팬을 설치하여 시험한 결과 사료섭취량과 산유량에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 우사 내 깔짚 ㉡ 환기 장치 개선 ㉢ 우사설계 등을 점검하여 우사 내에서 썩는 냄새나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가를 살펴야 한다.

② 사료다. 사료급여를 자주 변경시켜 주거나 농후사료의 변질로 인하여 우유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변경되거나 변질된 사료는 반추위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어 이상 발효를 일으킨다. 사료를 변경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교체하여야 한다. 낙농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다른 사람 말에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자기의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관리하자.



③ 농후사료 과다급여다. 여러 농가를 방문하다보면 두당 하루에 농후사료를 15kg 이상 급여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 이런 농가들은 대개 조사료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 농후사료 많이 급여하다보니 조사료는 주는 시늉만 하고 만든다. 조사료와 농후사료 혼합하여 급여하는 것이 좋고 조사료를 최소한 체중(건물기준)의 1% 이상은 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착유기 정기적 점검 및 착유기술 변화에 따른 적응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뒤쳐진 분야는 착유기 점검이다. 착유기가 정확히 진단이 되지 않아 유방염이 재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는 치료가 되지 않으며 계속하여 발병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또한 착유기술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며 적응을 하여야 체세포수를 줄일 수 있다.

#### ◆ 초지 및 사료포 관리

최종방목을 초순까지 마치고 마지막 청초베기를 실시하며, 초지 및 호맥의 초장이 10-15cm를 유지하도록 월동준비를 한다. 사일리지 및 건조생산에 사용된 각종 기계장비는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정비하여 창고에 보관한다. 이모작으로 재배한 유채나 연맥 등 사료작물은 양질의 조사료로 수확량이 최대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미 수확된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조 등은 보관 및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한다. ㉣